

## 2025년 6월 4주차 각 지역 소식



- 🌐대만
  - ✔YM INITIATIVE 운항재개 미정, 기선적 된 화물 별도 조치 없음, 대체 모선투입 없어 한국항 스케줄 딜레이, 스페이스 악화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25년 국가 경쟁력 평가 대만 6위, 작년보다 2계단 상승
- 🌐마닐라
  - ✔28년 까지 10개공항 민영화 추진
  - ✔6월 24일 마닐라 공휴일, 세관원 일부만 출근, 수출입 통관 지연 예상
- 🌐자카르타
  - ✔인니 우리은행 신용장 사기로 1100억 수준 손해 발생, 현지 중소기업 수출대금 지급보증서 허위 작성, 관련 부서 정밀 감사 착수
  - ✔자카르타 주정부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6월 11일부터 시행, 최대 25만루피화(US16)
  - ✔중국산 저가 제품 대량 유입, 인니 섬유, 가구 산업 기반 저해, 인니 내 관련 업체 가격 경쟁력 상실로 기반 붕괴, 중국산 수입품 통관 강화
- 🌐말레이시아
  - ✔포트켈랑 서부항만 터미널 증설 공사로 항만 적체 선박 외항 대기로 입항 지연

- ✓5 월기준 말레이시아 물류시장규모 USD297 억 30 년까지 연평균 5.2%로 지속성장전망
- ✓Selangor, Johor 지역위주 국가지원창고산업 확대. 이커머스, 냉장 유통,자동화 기술 주도

#### 🌐홍콩

- ✓홍콩 올 여름 사우디 슈퍼컵 개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출전 가능성 높아.. 8 월 19 일부터 23 일에 사우디 4 개팀 참가
- ✓홍콩발 평균항공운임 전주대비 2.4% 하락. 미/중 관세이슈 발발 이후 장거리 수출 화물 회복 미비
- ✓미주 컨테이너 운임 하락세.6 월상반기대비 하반기 약 40%인하

#### 🌐심천

- ✓메이탄 CEO 왕싱, 리상자동차 주식 또 매도...나흘간 6 억홍콩달러 규모
- ✓국적선사 심천발 한국착 해상 운임 인하, 미주향/유럽향 6 월말까지 해상 운임 유지

#### 🌐충칭

- ✓中 스마트안경 시장 '폭발적' 성장...판매 800% 급증

#### 🌐샤먼

- ✓中 해외 직구 폭발 성장...지난해 거래 규모 513 조원 넘어

#### 🌐불산

- ✓AI 인재 품귀에 대기업 총출동...텐센트·알리바바·바이두 캠퍼스 싹쓸이

#### 🌐상해

- ✓5 월까지 중국 수출 10.67 조 위안..전년比 7.2%증가
- ✓상하이항,미주 항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창고 사용료 50% 감면(냉동,DG 는 제외)
- ✓이스라엘-이란 전운고조..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유가인상 등 해운업계 고도 긴장
- ✓미국 무역대표부,非 미국제조 LNG 운반선 및 RO-RO 선 규제완화조치 시사
- ✓中 저가 소비 트렌드 지속...3.4 선도시 소비성장률 1.2 선도시 '추월'
- ✓上海 최초 '지하 19 층' 스마트 주차타워'..로봇이 대신 주차

#### 🌐광저우

- ✓작년 광저우 바이윈 공항 화물 우편 처리량 238 만톤 전세계 9 위,국경 간 전자상거래 운송 규모 중국 내 1 위, 바이윈 공항 4 개 활주로 운영 중, 3 기건설 프로젝트 완공 후 총 5 개활주로 운영 예정

## 🌐태국

- ✔태국 총리 캄보디아와 국경 문제 관련된 '군 뒷담화' 통화 유출 파문...정치적 혼란 확대
- ✔태국,방콕 F1 대회 유치 속도...1 조 7 천억원규모 입찰 안 승인
- ✔PTT 글로벌 케미컬,태국 최초 폐촉매 재활용 기술 상용화...연간 100 억바트자원 회수 기대
- ✔태국 수출,미관세 앞두고 3 년만 최대폭 증가
- ✔부실채권 급증,경제난으로 태국 신용 성장률 16 년만 처음으로 마이너스
- ✔카카오뱅크,태국가상은행 인가획득...25 년만 韓 은행 재 진출
- ✔블랙핑크, 방콕 공연 사상 첫 기록 갱신

## 🌐동경

- ✔혼다 기술연구소,재사용 가능한 소형 로켓 시제품 발사 착륙 시험 성공,길이 6.3m,직경 85cm 고도 271m 까지 상승,1 분후 원래 자세 유지한 채 부드럽게 착륙, 스페이스 X 의 '팰컨 9'처럼 이로켓도 반복 사용 할 수 있게 개발
- ✔일본 정부,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 175 엔 넘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할 것, 6 월 26 일부터 가격 억제 조치 시행

## 🌐하노이

- ✔李대통령,베트남 주석과 통화...고속 철도·원전 협력 확대
- ✔베트남,라벨/원산지표기 규정 단속으로 많은 소상공인 영향
- ✔베/미 관세협상,베트남에 중국 기술 부품 비중 줄이도록
- ✔에이스테크,베트남 에이스 안테나에 83 억원 현금 출자
- ✔(주)더프리콘,베트남 북부 타이응웬성에 2 억불 데이터 센터
- ✔동남아도로 공략 KCC,베트남 하노이 세미나

## 🌐호치민

- ✔브릭스 파트너, 베트남 개도국문제 해결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 ✔베트남, 對 유럽 농산물 수출 급증...4 월까지 1.3 억달러 33%↑
- ✔다낭시,자유무역지구 설립...568 만여평규모
- ✔베트남,커피 수출 사상 최고치 경신...5 월까지 47 억달러 63.2%

▶주간 시황 요약

Container 美 서안 6월포 대비 \$2,834 급락, 수급불균형 심화

Bulker 회계연도 마감 전 철광석 선적 집중이 종료되며 케이프 위주 하락

▶Container

	6/20	6/13	증감
SCFI	1869.59	2088.24	▼ 218.65
美서안	2,772	4,120	▼ 1,348
美동안	5,352	6,745	▼ 1,393
유럽	1,835	1,844	▼ 9
지중해	3,063	3,190	▼ 127
동남아	460	455	▲ 5
중동	2,122	2,083	▲ 39
호주	763	745	▲ 18
남미	5,459	4,724	▲ 735
日서안	315	315	-
日동안	319	320	▼ 1
한국	136	136	-
동서Africa	4,440	4,382	▲ 58
남Africa	2,476	2,397	▲ 79

\*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종합 SCFI 2주 연속 하락, 북미항로 급락 및 유럽항로 약세 전환

1. 경제/소비 회복이 동반되지 않은 단기 운임 급등은 공급 확대와 함께 빠르게 하락세 전환. 5월 상해 컨처리량은 관세 유예 후 수출 대기 수요 급증으로 465만 TEU를 처리하며 전년대비 10.2% 증가했으나, 6월 중순부터 미서안 공급 집중으로 운임 상황 급변
2. 5월 미중합의 후 북미항로는 '수요급등→정체심화→운임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으나, 현실은 '단기급등→선복증가→공급과잉→운임급락'으로 이어지는 양상
3. 호르무즈 해협 통과 컨화물은 전체의 2~3% 수준으로 아직 컨선 시장에 직접 영향은 없음

## 미주항로 美 서안 6 월초 대비 \$2,384 급락, 공급 과잉 현실화

1. 공급이 대폭 확대된 반면 실제 부킹은 5 월말에 미치지 못하며 선사간 경쟁 심화, 운임 인하 추세. 공급 증가와 더불어 관세 관련 법원 판결 및 국가별 협상 진행에 따라 관망세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발표 내용에 따라 선화주사 대응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2. 5 월 LA 항 컨처리량은 71.6 만 TEU 로 전년대비 -4.8%, 전월대비 -15%, LB 항은 63.9 만 TEU, 전년대비 -8.2%, 전월대비 -26.3%를 기록하며 상호 관세로 인한 물량 위축 현실화, 관세유예 효과가 반영되는 6 월 처리량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유럽항로 5 주만에 하락 전환, 계절적 성수기에도 수급 불균형으로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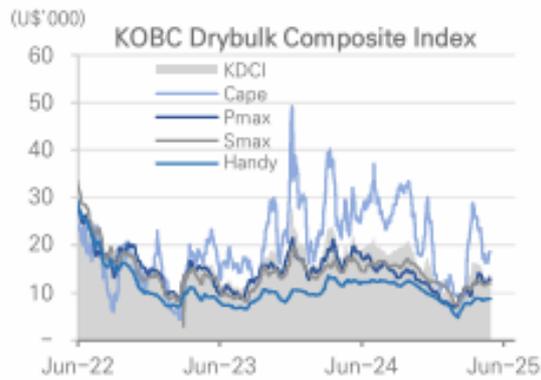
1. 유럽항로는 상승세를 거듭하며 추가 GRI 가 예고되었으나 최근 북미 시황 전환과 함께 분위기 변화, 인상 계획 하향 조정되는 추세. 지난주 지중해항로 하락에 이어 금주 2 개항로 모두 약세를 보임에 따라 운임 추가 인상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
2. CMA CGM 은 중동 정세 악화에도 수에즈 이용을 확대하며 2 개 노선 3 척이 수에즈 운하 통과 예정. 다만 최근 긴장감 고조가 후티반군 태세 변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운임 시장의 분위기 변화 또한 주요 선사들의 수에즈 운하 이용 재개 시점을 더욱 늦추게 할 것으로 전망

## 연근해/기타 동남아 5 주 연속 상승, 중동지역 긴장감 고조

1. 중동 정세 불안 계속되며 중동항 운임은 상승 압박에 노출, 사태 장기화 시 유가 상승 및 보험료 추가 할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운임 인상 요인으로 작용. 다만, 최근 주요 항로 운임 방향성 변화는 향후 중동 및 타항로 공급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

## ▶ Bulker

		6/20	6/13	증감
KDCI		15,991	17,326	▼ 1,335
Cape	평균	25,450	31,731	▼ 6,281
	F/H	50,853	52,125	▼ 1,272
	T/A	33,338	35,500	▼ 2,162
	Pac RV	19,468	26,800	▼ 7,332
P'max	평균	12,773	11,848	▲ 925
	F/H	18,750	17,593	▲ 1,157
	T/A	12,063	10,789	▲ 1,274
	Pac RV	11,000	10,275	▲ 725
S'max	평균	12,118	11,335	▲ 783
	F/H	17,216	15,692	▲ 1,524
	T/A	16,479	15,217	▲ 1,262
	Pac RV	10,712	10,366	▲ 346



### Cape 광산업체는 정기 정비 작업하러

1. 6/11 이후 美·中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최근 케이프 운임 인상을 견인하였으나 지속성이 없어 운임지지 효과 소멸
2. 호주의 회계연도 마감 전 연간 출하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되었던 철광석 출하가 대부분 마감되었고 회계연도 종료 후 광산업체들이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정기 정비 작업을 예정하고 있어 물동량 급감
3. 중국의 5월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8,655 만톤으로 집계. 이는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감산 방침을 공식화한 후 국유기업 중심으로 실제 감산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글로벌 철강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
4.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이 빠르게 하락한 반면 철강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제강 마진이 다소 개선되며 철광석 수요 급락을 억제
5. 중국의 5월 신축 및 기존주택 가격이 모두 하락하였고 고정자산 투자, 부동산 개발 투자, 제조업 투자 등도 둔화 추세. 소매 판매는 정부 보조금 정책(이구환신)효과로 반등하였으나 이마저도 일부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보조금 중단.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을 4.8%로 예상하며 하반기에는 4.5% 이하로 전망
6. 금주에도 철광석 수요가 증가할 이렇다할 요인이 없어 운임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Panamax 중국 대두 경매 성황

1. 남미 곡물 수출 견조세에도 불구하고 석탄의 계절적 수요 감소 지속, 최근 운임 급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감 심리로 하락세
2. 브라질의 대두 수출은 지난 해와 유사한 일일 수출량을 유지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옥수수는 본격 출하하기 이전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낮은 속도로 진행. Anec의 대두 수출 최신 전망치는 1,435만 톤(전년동월 1,380만톤)으로 지난 주 전망치에서 상향 조정
3. 18일 실시된 제 10차 중국 수입산 대두 경매에서 처음으로 총 경매물량 101,859톤 전량이 낙찰. 그간 낙찰률이 31%로 저조하였으나 이번 경매 결과로 시장 수요 회복가능성. 평균 낙찰가가 하락했음에도 낙찰률이 크게 상승한 점은 정부의 재고 소진 목적 또는 시장 내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 완화로 해석
4. 중국은 강수 증가로 수력 발전 비중 증가, 인디아는 몬순 영향으로 발전 수요가 줄어들며 수입 수요는 약화. 인도네시아 건기 진입으로 생산 여건이 개선되어 공급 압박 지속 예상
5. 인도네시아 내 일부 프리미엄 광산들이 장기계약 기반으로 판매를 완료하고 있는 반면, 우기 영향으로 저열량탄 일부 광산은 생산에 차질
6. 남미 곡물이 운임을 지지하고 있으나 아시아 석탄 시장의 계속된 침체로 상승 제한 전망

## Supramax 선주들의 운임 저점 방어

1. USG 화물 유입이 견조한 흐름을 이끌고 인도네시아 화물 회복과 선주들의 저점 방어 움직임이 이어지며 상승세
2. 대서양은 USG와 남미 북부의 화물 유입 증가와 남미 동부의 고운임 지속에 힘입어 일부 지역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견조한 펀더멘털 속에 점진적인 상승세
3. 태평양은 인도네시아 석탄 화물 유입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일부 지역에서 신규 화물이 포착되는 가운데 선주들의 저점 방어 움직임이 맞물리며 수급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전환

상기 작성된 자료의 중 일부는 해양진흥공사의 공식 패널로 참여 된 기업으로써 해당 부서의 승인 후 배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원 상무 / Kai Kim / Managing Director



07642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95 (내발산동, 맥익스프레스 빌딩)

Tel : +82-2-2661-3401(ext.704)

Fax : +82-2-2661-3403

Mobile : +82-10-5139-9985

E-mail : [kai@imcexpress.co.kr](mailto:kai@imcexpress.co.kr)

URL : [www.mcexpress.co.kr](http://www.mcexpress.co.kr)